



미 증시, 어닝시즌 앞둔 경계심리에 하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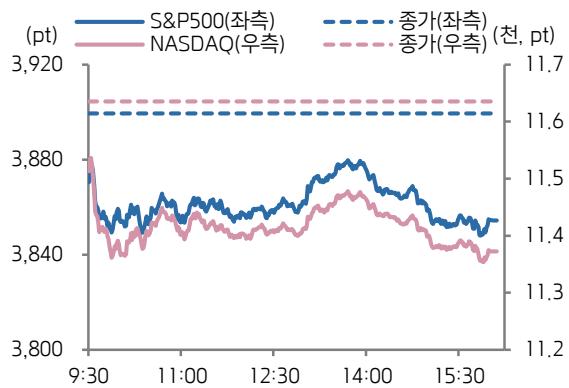
11 일 (월) 미국 증시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및 6 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경계심리와 중국 코로나 19 봉쇄 소식이 하방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다우 -0.52%, S&P500 -1.15%, 나스닥 -2.26%, 러셀 2000 -2.11%).

중국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18 일까지 일주일간 마카오 지역을 봉쇄한다고 밝힘. 마카오 내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둥성과 상하이 등에서도 확진자 수가 증가, 봉쇄 조치 강화 우려 확대된 영향으로 유가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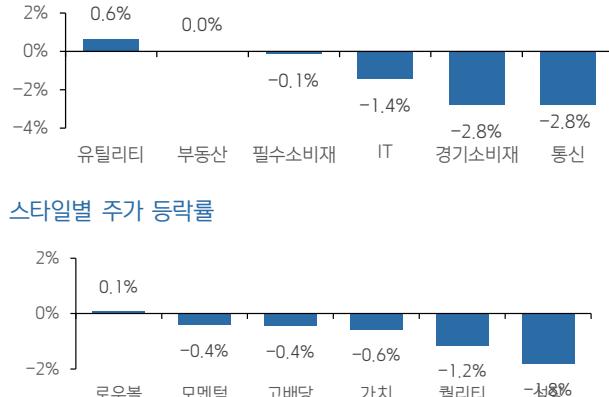
지난 6 월 FOMC 에서 75bp 금리 인상을 반대, 50bp 인상을 지지했던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긴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미국은 더 높은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75bp 인상을 지지. 미국채 10 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하며 3%를 하회하고 2 년물 금리는 3.08%대를 기록하며 장단기 금리차 역전 지속.

업종별로 유틸리티(+0.6%), 부동산(0.01%) 업종만이 상승한 가운데 통신(-2.8%), 경기소비재(-2.8%), IT(-1.4%)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커짐. 유가 하락, 미국채 10 년물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침체 우려 확산되며 알파벳(-3.08%), 테슬라(-6.55%), 엔비디아(-4.33%) 등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하락하며 나스닥 약세. 트위터(-11.30%)는 일론 머스크의 인수 계획 파기로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되며 급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 | | | |
|-------------|-----------|--------|-----------|----------|--------|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S&P500 | 3,854.43 | -1.15% | USD/KRW | 1,303.97 | +0.29% |
| NASDAQ | 11,372.60 | -2.26% | 달러 지수 | 108.24 | +1.16% |
| 다우 | 31,173.84 | -0.52% | EUR/USD | 1.00 | -0.01% |
| VIX | 26.17 | +6.21% | USD/CNH | 6.72 | -0.01% |
| 러셀 2000 | 1,732.01 | -2.11% | USD/JPY | 137.44 | +0% |
| 필라. 반도체 | 2,553.69 | -2.46% | 채권시장 | | |
| 다우 운송 | 13,245.74 | -1.13% | 국고채 3년 | 3.320 | +0.4bp |
| 유럽, ETFs | | | 국고채 10년 | 3.385 | +2.5bp |
| Eurostoxx50 | 3,471.69 | -0.99% | 미국 국채 2년 | 3.072 | -3.3bp |
| MSCI 전세계 지수 | 600.82 | -1.28% | 미국 국채 10년 | 2.993 | -8.7bp |
| MSCI DM 지수 | 2,603.62 | +0.06% | 원자재 시장 | | |
| MSCI EM 지수 | 999.57 | +0.53% | WTI | 104.09 | -0.67% |
| MSCI 한국 ETF | 56.63 | -2.86% | 금 | 1731.7 | -0.61%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86%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2.67%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10.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수 추이
2. 중국 봉쇄 여파 및 은행 업종 관련 노이즈 확산 여부
3. 국내 2 분기 실적 발표 및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 주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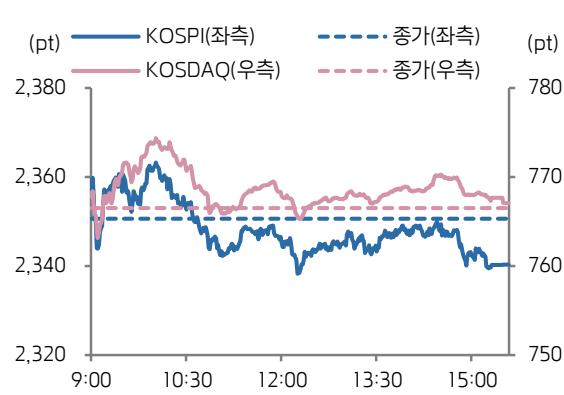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향후 1 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은 6.8%로 사상 최고치 기록. 미국 6 월 소비자물가지수 컨센서스가 8.8%(전월치 8.6%)로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Fed Watch 기준 7 월 FOMC 75bp 인상 가능성은 90%를 상회, 100bp 인상 가능성은 9.4%대까지 상승.

기존 예상보다 금리 인상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며 10 년물-2 년물 금리 역전 상태 지속. 인플레이션과 침체 관련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일 펩시코를 시작으로 미국의 2 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됨.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소비 위축 등이 반영된 실적 결과가 주중 증시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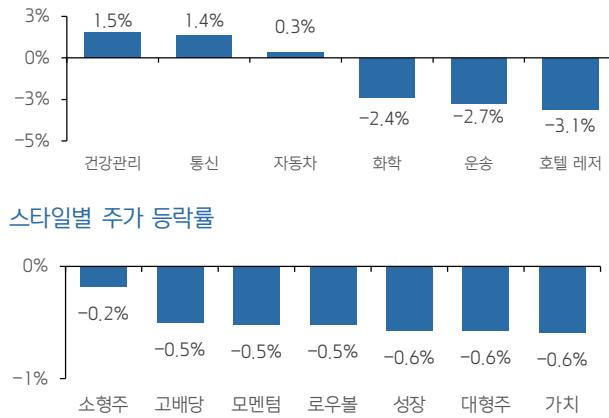
전일 코로나 재확산 우려 여파로 항공, 레저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그동안 인플레 수혜를 받았던 소비재 업종 위주로 조정을 받음. 미국 6 월 소비자물가지표 확인을 앞두고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 금일 국내 증시 역시 전일 나스닥 급락 여파로 인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낙폭과대 성장주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다만, 현대차와 기아 2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컨센서스가 추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부각되었다는 점, 반도체 업황 부진 및 신규 시설투자 지역에도 불구하고 전일 테크윙 2 분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발표되었다는 점 등은 관련 업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조와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련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